

<2013년 12월 8일 주일말씀>

계산을 잘못하면 댄 세상이다

본 문 이사야 55장 8-9절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누가복음 14장 3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선생은 5개월 하고도 5일째 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5일째 기도하며 차원 높은 세계에 올라 성자에게 받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으로 성자가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곧 ‘계산을 잘못하면 댄 세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나 수학 계산을 잘 하듯이 인생 계산과 판단을 잘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잘 배우고 행하면, 머리가 좋아 집니다. 머리가 좋아져야 ‘성자의 말씀’ 과 ‘시대 역사’ 를 더욱 잘 깨닫고 행하니 휴거되기도 쉽습니다.

*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육의 세계 계산’ 에 대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육의 세계 계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적인 것도 깨우쳐 주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좋을수록 ‘수학 계산’을 잘한다고 합니다.

수학 세계가 계산하는 차원이 높고 세밀하기 때문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언어>는 같은 것을 보고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잔다. 돌아가셨다. 밥숟가락을 뺐다. 세상을 떴다. 별세했다. 운명했다. 고인이 되었다.’ 등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수학>은 문제의 답이 세계 공통으로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3 더하기 3’의 답은 ‘6’입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도 답은 ‘6, 하나’입니다. ‘3 빼기 3’의 답은 ‘0’입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도 답은 ‘0, 하나’입니다. ‘3 곱하기 3’의 답은 ‘9’입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도 답은 ‘9, 하나’입니다. 수학 문제의 답이 하나인 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의 비유를 들어 <신앙>도 <인생>도 그러하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끝>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돈 계산을 할 때, 뒤에 숫자 하나를 더 쓰든지 덜 쓰면 엄청나게 손해가 갑니다.

가령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계산을 잘못하여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고로 10배 **더** 줘야 하니, 10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100만 원을 **반아야** 하는데, 계산을 잘못하여 뒤에 ‘0’ 하나를 **덜** 붙이면 10만 원이 됩니다. 고로 10배를 **덜** 받으니, 10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곱할 것인데 더하거나 빼거나 나눠서 계산하면, 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땀 세상이 됩니다.

‘돈’으로 생각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곱할 것인데 **더하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곱할 것인데 **빼면**, 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곱할 것인데 **나누면**, 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또 빼야 되는데, 그냥 두거나 더해 버려도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완전히 땀 세계입니다. <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두기.’에 대한 수학 법을 알고, 계산을 잘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잘못해서 값을 더 주고 온 것을 알면, 놀라서 당장 쫓아가 다시 계산하여 더 준 돈을 돌려받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값을 더 주고 온 것을 모르면, 그냥 손해 보고 말게도 됩니다.

인생을 살 때도,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사업할 때 계산을 잘못하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씩 번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달동네에 살기도 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그러합니다. ‘인생 삶’을 잘못 구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산하고 살면,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실패하고 망할 일인데도 뇌가 굳어서 자기 주관과 인식대로 잘못 계산하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희망에 차서 행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아니니 허탈과 허무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꾼의 말에 속은 것을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으니, 초상집으로 끝나고 맙니다. <끝>

이제 이해했습니까? 〈인생 삶의 것〉도 〈신앙적인 것〉도 모두 계산을 잘못하고 자기 짧은 날과 시간을 다 투자하여 뛰어들어 행하다가... 끝에 가서 그 하던 일이 꿈 깨듯 깨져 충격을 받고, 인생 손해를 보고, 허무와 허탈 속에 육도 영도 딴 세상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방향과 내용이 확실히 이해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자는 항상 “설명을 잘해라.”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성자는 설명까지 거의 다 해 주십니다. 선생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보내 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음성, 강약, 띄워서 읽기, 제스처, 영력 등 각종으로 잘못 계산하고 성자와 선생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은혜 충만하지 못합니다.

모두 잘하는 자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고 말씀을 저리도 잘 전하는지 깨닫고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전환>

<계산>은 수학 공식처럼 ‘인생 삶 속’에 다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계산이 인생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5)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산을 잘못하면 댄 세계다.’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육계와 영계의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답이 댄 세계이듯, 인생도 생각과 계산을 잘못하고 행하면 댄 세계라는 것입니다. (2쪽 5번 초안 다시 그리기 / 댄 세계 표현은 생명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망길에 있는 것, 휴거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것, 성자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는 것 등) <끝>

누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성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는 먼저 앉아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군인 만 명을 가지고, 군인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며, 계산을 잘못하면 패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할 때는 먼저 적군의 병력과 우군의 병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전쟁터로 나가야 이긴다.” 했습니다. (‘적군의 병력’ :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고 있고, ‘우군의 병력’ : 왼손 주먹을 쥐고 들고 있다. 손은 가슴까지 올린다.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 손을 기본 제스처 하듯이 앞으로 뻗는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는 계산을 제대로 하고서 행해야 됩니다.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인식으로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잘못 계산하고 새 역사를 좇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육도 혼도 영도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댄 세상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인생과 신앙

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또 성경의 주인이 성경을 풀어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자기 낮은 지능대로 성경을 풀고, 풍속대로 성경을 풀고, 자기 주관과 의지로 성경을 풀고 산 자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도 영도 비원리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고는 나름대로 다 하고서 얻는 것은 10분의 1밖에 못 얻습니다. 더러는 육과 영이 얻은 것이 ‘고통과 형벌과 화’ 뿐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자가 주신 한마디 계시 말씀 “**계산을 잘해라. 계산을 잘못하면 딴 세상이다.**” - 영원한 황금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을 모두 뇌에 확실히 외우고 생명시해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6)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자가 아니니, 두뇌의 차원이 낮아서 앞날의 큰 것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고로 반드시 기도하여 성자와 그 분체가 함께 계산해서 알려 달라고 애원해야 됩니다.** 성자와 분체가 계산을 잘해 줬을 때,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 황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주를 기다리는 자들 보여 준다. 기성 지도자들도 보여 준다 /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 그 앞에 성자와 분체 서 있는 모습 / 행하니, 영이 신부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에 가는 모습) <끝>

<전환>

* 선생은 다섯 달이 넘도록 절식 기도를 하면서, 성자께 수천 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속 하던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계속 성자에게 기도하면, 성자는 과거 행위도 보시고 앞날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자는 그때 모두 계산하고, ‘딱 한마디 답’을 주십니다.

(한 손 기본 제스처 하다가 ‘딱 한마디 답’ 할 때, 오른손 검지 가슴까지 든다.)

그 한마디 말씀을 실천하면... 어느 때는 ‘황금성’을 찾고, 어느 때는 ‘잃은 생명’을 찾고, 어느 때는 ‘귀한 작품’을 찾고, 어느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인데 손해를 안 보고 얻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말씀 실천하면’ : 오른손 검지 들고 있다가,

‘어느 때는 황금성을 찾고...’부터 양손으로 기본 제스처)

어느 때는 성자가 다 계산하고 “하지 마.” 세 글자를 주십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후에 가서 보면 ‘목숨’을 얻게 됩니다.

성자가 다 계산하고 주신 답을 듣고 실천하면 계속 복이 되고, 계속 기쁘고, 계속 희망에 차서 평생을 두고 말하게 됩니다.

* 한번은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계획적으로 음모하기에, 섭리 전체가 일어나 행위대로 갚아 주겠으니 계산해 달라고 성자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자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하지 마.” 하셨습니다.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하지 마.’ 할 때, 양손을 바깥으로 뻗고 고개를 살짝 한 번만 저으면서 ‘하지 마’를 표현한다.)

그 말씀대로 안 하니, 성자께서 하늘의 마병대를 보내어 계획적으로 섭리사와 나를 괴롭힌 자들의 육에게도 영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선생은 ‘원수 사랑’을 몸소 행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했다.” 외치고, 역사에 몇몇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문제를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 육성으로 생각하고, 혹은 환경의 제재를 받고 생각하고, 뇌가 굳어 있고 차원이 낮아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려 계산을 잘 못 합니다. 고로 기도함으로 자기 사연을 고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 생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하기만 하면 ‘행복’ 이고 ‘축복’ 입니다.

<전환>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7) 예수님 때 구약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인식과 자기 사고와 자기중심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불신하고 악평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간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인지 몰랐습니다. 계산을 잘못하여, 선조 때부터 쌓아 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고로 새로운 구원역사로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뇌가 구시대 쪽으로 바위같이 단단히 굳어 있는 자들이었고, 그 생각이 시궁창에 흘러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뜨끔하게 제작) <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역사를 느끼고 깨닫고 따라온 자들은 ‘말씀 계산, 시대 계산, 인생 계산’을 잘하여, 그 육과 영이 구약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열어 <신약 자녀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그 자손들로 이어져 2000년 동안 <신약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신앙의 선조를 잘못 만나면, 자기 육도 영도 흑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선조의 죄는 자손에게까지 이어져 자손들도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8) 하나님과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온다.” 하며, 신약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요 14:18, 마 24:30, 행 1:11). (신약성경)

<참조>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신약의 때가 다 되어 2000년이 되니, 하나님은 그 약속과 뜻대로 성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세운 자가 신부로서 성자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여 ‘다시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자 다시 오심, 그 육을 통해 나타나 말씀하심, 선생님 청중 놓고 외치시는 모습)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시대인들은 또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잘못 계산하여 새 역사의 사명자를 또 핍박하고 악평하고 반대했습니다. / 고로 그 육도 영도 만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구시대 - 잘못 계산하고 사는 자들> 써 놓고, 예수님 육신 하늘 구름 타고 오고, 사람 육신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 넣는다. /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기성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섭리 핍박하는 모습 넣는다. / 육과 영이 구시대권에서 살고 있거나, 사망권에서 살고 있는 모습)

구시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역사는 맞지 못하고, 발전을

해도 구시대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구시대가 해가 지니, 새 역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녀급>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새 역사를 무고하게 핍박한 자들은 <자녀급 구원>마저 상실했습니다. (구시대권에서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 신약 삼각 도표 끝에 해가 진 모습 넣기 / 새 역사 핍박한 자들 보여 주고, 그 영이 사망권에 있는 모습 넣기)

새 역사 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자들은 ‘신약 예언의 약속’을 받아, 성자의 육을 맞고 그를 통해 다시 오신 성자를 맞아 ‘성자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계속 성장하여 결국 <휴거 역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 고로 ‘육’은 땅에서 성자의 육을 맞아 휴거의 삶을 살고, ‘영’은 성자를 맞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계산을 잘하면, 이같이 평생 좋은 세상을 맞고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 외치는 모습, 그리고 섭리사 큰 행사 때 우리들 모습 / 2013년 섭리 독립 도표 보여 준다. / 육신은 땅에서 분체 맞고 살고, 그 영이 신부로 휴거되어 천국에 오르는 모습 넣는다.) <끝>

<휴거>를 놓고서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자기중심, 자기 인식으로 계산을 잘못하고 “나는 휴거됐다.”, 혹은 “나는 휴거 안 됐다.” 하지 말고, 성자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계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휴거의 어느 지점까지 왔나요? 90선인지, 100선인지, 120선인지, 150선인지, 200선인지, 250선인지, 300선인지 알려 주세요.” 하고, 혼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자는 회개한 것, 전도한 것, 강의한 것, 관리한 것, 성자를 사랑한 것, 말씀에 순종한 것, 주를 증거한 것, 기도한 것, 각종으로 하늘 일을 한 것, 성령 받은 것, 성자와 분체를 모시고 섬긴 것, 형제와 화평한 것 등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하면, 휴거 어느 지점인지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일부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넣고 계산하지만, (한 손 기본 제스처) 성자는 다 넣고 계산합니다. (두 손으로 힘차게 기본 제스처)

이성 문제가 있는데도 주께 고하지 않은 자는 휴거는커녕 휴식도 못 하게 됩니다. 영계에서 선생의 혼이 다 봤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자가 단상에 서면, 성자가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형벌이 있어도 가볍습니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넘어지고 섭리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됐지?” 하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한 것과 실상은 다릅니다. 성자는 누가 안 볼 때 행한 것, 각종 이성 건, 성자를 속인 것, 가식으로 행한 것까지 다 계산하여 그 행위대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성자가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성자는 선악 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넣고 계산하시니, 우리가 계산한 것과는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은 없어지니, 회개한 것은 안 넣고 계산하십니다.

선생에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넘어지게 됐나요?” 물으면, 선생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할 것만 해 주지, 속사정은 다 말하지 못합니다.

<전환>

생활하면서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인식으로 잘못 계산하면... 그 동안 엄청나게 수고해 놓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잘못 계산

하여 곱해야 되는데 뵈으니, 엄청나게 다른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자와 분체가 하면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손해가 안 갑니다. 고로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자가 계산해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할 때도 선생은 내 계산, 내 중심, 내 인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으로 답을 받고 성자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고로 〈월명동 자연성전〉은 성약역사 1000년까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기본 제스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손해도 없었습니다.

육과 마음의 힘을 다하여 섭리를 열심히 뛰어 놓고서, 사탄과 악평자들과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포기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또 세상 사랑으로 계산하여 세상으로 머리를 돌린 자들은 그 육에게도 영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모두 절대 성자와 분체에게 계산해 달라 기도하고, 그 계산대로 만사의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잘되어 후회가 없고, 얻을 것을 풍족하게 얻고, 두고두고 기쁨 거리가 되고 사랑 거리가 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은 ‘판단’을 잘하게 합니다. 고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 모두 계산을 잘못하고 행하다가는 (한 손 기본 제스처) 틀린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손 기본 제스처)

앞날의 진로를 놓고서도 본인이 계산하지 말고, 성자와 그 육이 계산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땀 세상이다.’ 이 말씀을 매일 뇌에서 잊지 말고, 계산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하여 성자와 분체가 계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자와 분체가 계획한 것이 있으니, 계산할 때 그것도 같이 넣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명이 달라지는 계산법이 나오니다. 믿습니까? 아멘.

* 나머지는 수요일에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수요일 말씀은 ‘계산을 잘못하면 땀 세상이다.’에 대해서 성자가 주신 깊은 잠언의 말씀을 설교로 풀어서 해 주겠습니다.

(* 축도는 토요일에 보냅니다.)